

전북 학생선수단, 전국동계체전 참가

빙상·스키·컬링 등 5종목서 출전... 체전은 내일부터 28일까지

김승환 교육감, 강원도 강릉 컬링 경기장 찾아 학생 선수들 격려

전북 학생선수단이 오는 25일부터 강원·경기·서울·경북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생선수단은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5종목에 선수 148명과 임원 50명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개·폐회식 없이 전종목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제102회 대회와는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고, 제101회 대회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선수단이 금메달 20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며, 전라북도 선수단이 4위를 차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북 학생선수단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사전경기 컬링 종목에서 여자초등부(송연우·서일호 5, 박대만·여울호 5, 유소정·민수호 4, 강지우·화정호 3)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라북도 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대회 아이스하키, 피겨, 컬링, 쇼트

트랙 종목은 학교운동부에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 후 참가하는 것으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정책 2차 성적표를 받게 된다.

앞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수영 중등부 배영 50m 은메달, 롤러 여초부 500m 동메달, 농구 남자초등부 8강 진출 등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전라북도 학생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2일 평창 바이애슬론 경기장과 강릉 컬링 경기장을 방문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해 온 학생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학생선수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하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예방적 차원의 방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2일 강릉 컬링 경기장을 찾아 도내 학생선수단을 격려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역 매뉴얼 준수 안내와 학교운동부의 탄력 운영, 경기 장비 적극 지원, 20여억원의 훈련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은성 기자



부산 기장군,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관심'

정임수 기장부군수 일행 무주 찾아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우호적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무주를 방문한 기장군 정임수 부군수는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이며 종주국인 만큼 쇠락하고 있는 태권도의 충흥을 맞이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며 "반드시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군수는 "태권도 부흥의 마중물이 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무주살임을 위해 기장군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약속했다.

무주군 김희욱 부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라며 "무주군민들이 100만인 서명운동과 범군민추진위원회 가동, 그리고 태권도계의 업무협약과 지지선언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무주군도 기장군의 역점사업인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기장군 대표단 측에 전달했다.

기장군 대표단은 양 지자체의 특산물 교환과 함께 태권도원을 비롯해 향로산자연휴양림, 카페순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1996년 기장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기장발전추진회 대표단 참석, 무주군 기장군 행정교류협의회 등으로 활발한 우호 교류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쇼트트랙 김 황대현

800만원 상당 오메가 시계 받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의 황대현(강원도청)이 오메가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 받았다.

올림픽 공식 타임커퍼 오메가는 23일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의 황대현에게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시마스터 아쿠아티라 베이징 2022 을 증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알렸다.

황대현은 지난 9일 대회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었다. 황대현은 "이렇게 특별한 시계의 주인공이 돼 기쁘다. 다음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메가는 2012 런던올림픽부터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에게 시계를 증명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런던올림픽에선 사격의 진중호,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선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2018 리우올림픽에선 양궁 남자대표팀이 시계를 받았다.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한국 선수단 첫 번째 남녀 선수에게 올림픽 에디션 시계를 증명하기로 했고, 쇼트트랙의 황대현, 최민정(삼남시청)이 주인공이 됐다. /뉴시스

박윤기·김아람 등 '아는 형님' 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김아람, 이우빈이 '아는 형님'에 뜬다.

세 사람은 24일 JTBC 예능물 아는 형님 녹화에 참여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비하인드 등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오후 8시40분 방송한다.

박윤기는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준서, 김동욱, 박정현, 황대현과 함께 팀을 이뤄 맹행 역할을 했다. 김아람과 이우빈은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뉴시스

"반드시 K3 승격"

전주시민축구단, 프로 경험

선수 6명 '폭풍 영입'

전주시민축구단이 K3승격을 위해 프로 경험이 있는 6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23일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FC서울 중 앙수비수 심원성(22)과 광주FC 중앙공격수 이중서, 경남FC 출신 김중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포항 스틸러스의 미드필더 양태렬과 서울이랜드 공격수 고준영, 안산그리너스 수비수 임재관을 임대 영입했다.

심원성은 지난해 FC서울에 입단했다. 중앙 수비수로 190cm키에 몸무게 88kg으로 타고 난 체격조건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심원성은 개인기량과 슛 감각이 뛰어나 수비와 공격 포지션에서 두루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FC에서 뛰었던 이중서는 지난 2017년 광주FC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강릉 시청과 대전코레일에서 활약했다.

이중서는 182cm키에 73kg으로 중앙 침투능력과 개인능력이 뛰어나면서 강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공격수다.



(사진 왼쪽부터)심원성, 이중서, 김중진, 양태렬, 고준영.

(사진=전주시민축구단 제공)

김중진(22)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2018년 경남FC에 입단 2년 동안 프로생활하고 지난해 양주시민축구단을 거쳐 입단했다. 공격수인 김중진은 돌파력이 뛰어나고 개인기량 능력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양태렬은 지난 2017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아산무궁화FC와 경주한수원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 갔고 프로총산 17경기 3득점을 기록했다.

미드필더로 타고난 양태렬은 패싱 능력이 뛰어나고 공수 전환이 빠르며, 볼 관리, 전진 플레이가 장점이다.

임재관은 지난 2020년 안산그리너스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으며, 측면수비수로 대인방어가 뛰어나고 넓은 시야와 정확한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다.

지난 2019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이랜드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고준영은 측면 공격수로 일대일 돌파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크로스, 강한 슈팅이 장점이다.

심원성은 "올해 우리 팀이 K3로 승격할 수 있도록 공격과 수비에서 열심히 활약해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양태렬은 "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팀 성적이 물론이고 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다"며 "비록 임대로 전주시민축구단에 왔지만 팀에 기여할 수 있고,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철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K4리그 우승과 함께 K3리그 승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올 시즌 공격 축구로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유소년·프로 선수

부상방지 프로그램 개발

배구연맹-한체대 협업

한국배구연맹(KOVO)과 한국체육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유소년 선수와 남녀 프로 선수들을 위한 부상방지 및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KOVO는 2019-2020시즌과 2021-2022시즌에 걸쳐 부상방지 및 경기력 향상 연구를 진행해왔다.

1차 연구에서는 신체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3차원 동작 가법'을 활용해 스파이크와 같은 배구 동작 중 관절에 적용되는 움직임과 힘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2차 연구는 1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수들의 부상 빈도가 잦은 무릎, 발목, 어깨, 허리에 대한 맞춤형 부상예방법과 운동법을 개발했다. 이를 담은 26편의 교육 영상 4편의 가이드북 및 E-Book과 16종의 포스터를 제작했고, 영상과 E-Book은 연맹 공식 홈페이지 및 네이버TV 배구채널에 게재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포스터 및 가이드북 등의 인쇄물은 배구 유소년 학교와 남녀부 14개 프로 구단에 순차적으로 배포 중이다.

또한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들이 실제 운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소년 학교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OVO는 시즌이 종료되는 대로 프로 구단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국대 비보이·비걸들, 과학적인 체육훈련 받는다

도체육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 훈련 지원

국가대표 비보이(Bboy)와 비걸(Bgirl) 선수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받는다.

2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브레이킹 국가대표로 선발된 비보이와 비걸이 체육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스트리트 우먼 파이타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비걸 김예리(YELL)를 비롯해 전지예(Freshbilla) 그리고 비보이 김종호(LEON), 최승빈(Hady) 등 총 4명이다.

전북체육회는 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전북 스포츠과학센터에서 테이핑 활용방법,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비롯해 컨디션 조절을 위한 심리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문체육 선수들이 이용하는 체력훈련 단련장에서 전문 체육지도자의 도움 아래 기초체력을 다지게 된다.

이번 훈련은 브레이킹 국가대표팀 총괄 감독으로 선임된 라스트프론트 조성국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주 출신인 조 대표는 과거 각종 세계 비보



(사진 왼쪽부터)소재환 코치, 김종호, 김예리, 최승빈, 조성국 감독.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비보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린 레전드 비보이 출신이다.

조성국 감독은 "춤 분야에서는 전문이지만 체력훈련 등은 생소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기 위해 왔다"며 "진전 국가대표 선수층에 입소하기 전까지 체력을 높이고 컨디션 조절 및 부상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종목에서 한국 선수단이 메달을 획득,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